

SERI 경제 포커스

2013. 6. 4. (제419호)

셰일혁명에 흔들리는 에너지 대국, 러시아

목차

FOCUS	1
1. 셰일혁명으로 타격받는 러시아 경제	
2. 셰일혁명에 대한 러시아의 4大 대응책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4
경제일지	15
경제통계	18

작 성: 이대식 수석연구원
(ds8787.lee@samsung.com)
02-3780-8309



삼성경제연구소

< Executive Summary >

셰일혁명으로 러시아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2009년 미국은 셰일가스 생산에 힘입어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천연가스 생산국으로 등극하였다. 셰일오일의 생산도 급증하여 미국은 2020년 이전에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이다. 반면, 석유와 가스 부문이 재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에너지 자원에 경제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는 미국발 셰일혁명으로 인해 에너지 대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2010년 이후 석유와 가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3년 1/4분기까지 경제성장의 하락세가 이어지자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 전망을 재차 하향 조정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에 밀린 중동산 석유와 미국산 석탄이 유럽으로 유입되어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하자 러시아는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장기계약의 핵심인 가스가격의 유가연동제 폐기도 고려하고 있다. 심지어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을 '생산과 수송'의 두 부문으로 분리하라는 EU 집행위의 요구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시아의 에너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러시아의 신동진(新東進) 정책도 셰일혁명으로 제동이 걸렸다. 최근에는 미국이 자국 내에서 셰일오일(타이트오일)을 생산하면서 석유 수입을 줄이자 중동의 석유가 아시아로 추가 유입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구입할 예정이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착수했다. 이에 러시아는 기존에 진행 중이던 원유 및 가스 공급 협상에서 대부분의 중국 측 요구를 수용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영토 분쟁 관련 협상을 재개하며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미로 넘어간 에너지 주도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OPEC과 GECF(가스수출국포럼) 등 글로벌 협력기구 및 기업들과의 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향후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시베리아 셰일오일 유전과 동시베리아와 북극해의 신규 광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자 독점 체제가 약화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화는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향후 러시아가 중국 편향적 에너지 마케팅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협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시베리아와 북극의 에너지 개발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한·러 에너지 경협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셰일혁명으로 타격받는 러시아 경제

글로벌 셰일혁명이 러시아 같은 에너지 수출국들의 권력을 갉아먹을 것이다.
 - 워싱턴타임스(2013.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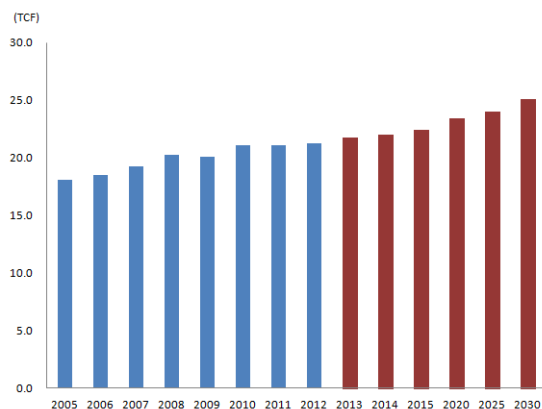
셰일가스과 오일이 미국의 산업을 재생시키고 유럽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러시아는 대부분을 잃게 될 것이다.
 - 위키스트라트(2012.7.27.)

셰일혁명으로 부상하는 미국의 에너지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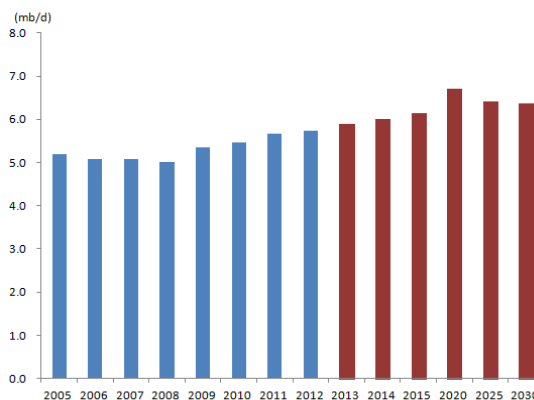
□ 미국의 셰일가스와 셰일오일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구조를 재편

- 미국의 셰일가스는 생산량과 가격경쟁력에서 러시아를 압도
 - 미국의 가스 생산은 2009년 러시아를 추월한 이후 1위 자리를 고수
 - 2013년 2월 미국 셰일가스의 가격은 1BTU당 3.32달러로 유럽(11.77달러)과 일본(16.66달러)의 25% 미만 수준
- 셰일오일 생산의 급증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부상할 전망
 - 2009년 2,500배럴에 불과했던 셰일오일 생산량이 2012년 2mb/d¹⁾로 약 800배나 급증하여 전체 석유 생산량이 3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 2020년 이전 세계 최대 원유생산국, 2030년 이전 세계 2위 원유순수출국²⁾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미국 석유 생산량



주: 2013년 이후는 전망치

자료: EIA (2011).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EIA (2013). Annual Energy Outlook 2013 Early Release.

¹⁾ million barrel per day(일일 백만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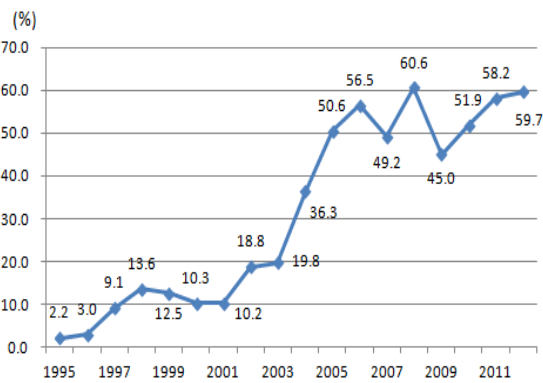
²⁾ IEA (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세일혁명은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러시아 경제를 위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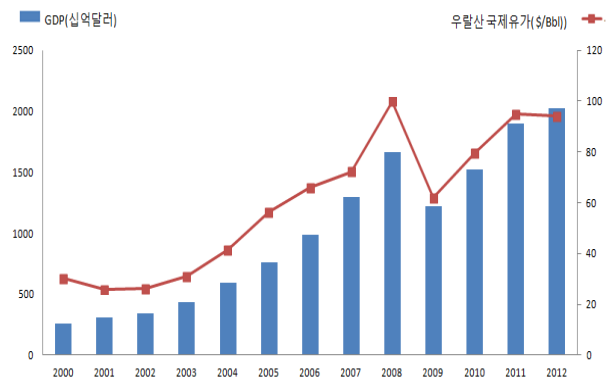
□ 러시아 경제의 주동력은 석유·가스의 생산과 수출

- 2000년대 들어 러시아 산업의 석유·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
 - 고유가로 인해 2000년대 이후 산업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
 - 유가 상승(하락)에 따라 고(저)성장하는 등 유가의 향방에 따라 경제상황이 변화

2차 산업의 에너지 자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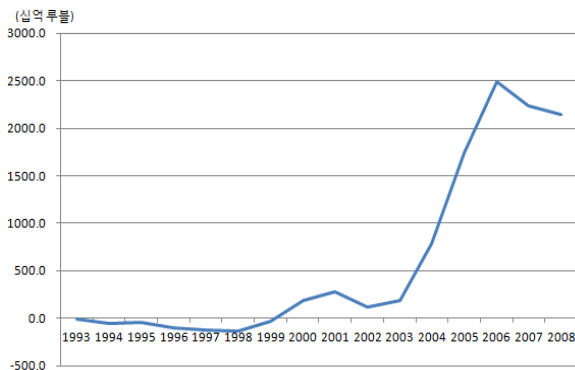
러시아 GDP와 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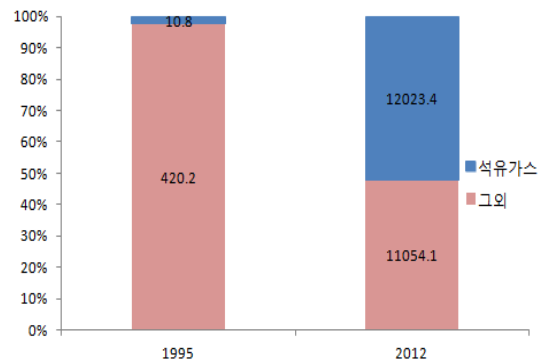
자료: 러시아 재정부; Oxford Economics; Euromonitor

-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 재정수입의 근간
 - 2000년대 유가 상승에 힘입어 러시아의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이후 흑자폭은 빠르게 확대
 - 재정에서의 석유·가스 비중 10% 미만(1990년대)→52.1%(2012년)

러시아 재정수지 추이



러시아 재정 중 석유가스 비중



자료: Oxford Economics

-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최근 석유와 가스의 對유럽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러시아 경제성장이 둔화
 - 2010년 이후 석유·가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
 - 석유 수출량 250.7bcm('10)→244.5bcm('11)→239.9bcm('12)
 - 가스 수출량 189.7bcm('11)→178.7bcm('12)
 - 2013년 1/4분기에도 석유·가스 수출의 감소로 인해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7% 감소
 - 2012년 상반기 이후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동시에 정부의 재정수지도 악화되기 시작
 - 2012년 경제성장률 4.8%(1/4)→4.3%(2/4)→3%(3/4)→2.1%(4/4)³⁾
 - 재정흑자 규모 1조 1466억루블(2011년)→196억루블(2012년)
- 셰일혁명을 무시했던 러시아 정부는 최근 석유·가스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대책 마련에 돌입
 - 2013년 4월 러시아 정부는 201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6%에서 2.4%로 하향 조정
 - 셰일혁명을 할리우드 특수효과에 불과하다고 무시했던 러시아는 2012년 8월 이후 공식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

러시아 정부의 셰일혁명에 대한 반응 일지

- 2012년 1월 - "셰일혁명은 할리우드 특수효과에 불과" (가즈프롬 회장)
- 2012년 8월 - 러시아 경제에 대한 셰일혁명의 영향을 최초로 인정 (경제부 차관)
- 2012년 8월 - 슈토크만 가스전 개발 중단 (對미 LNG 수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
- 2012년 10월- 2030 가스발전계획과 동부가스프로그램 수정 지시 (푸틴)
- 2013년 4월 - 서시베리아 셰일오일 개발 계획 발표 (루코일 부사장)
- 2013년 4월 - 가즈프롬의 분사 가능성 고려 (푸틴)

³⁾ 2013년 1/4분기에는 1.1%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2. 셰일혁명에 대한 러시아의 4大 대응책

① 유럽시장의 失地 회복

- ▷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
- ▷ 가격구조 조정과 가스프롬의 分社 등을 추진

② 동북아시아 시장 개척을 가속화

- ▷ 셰일혁명이 러시아의 新東進 정책을 위협
- ▷ 파격적인 정치·경제적 양보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

③ 對중동외교 강화

- ▷ OPEC 등 글로벌 협력 기구와 기업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

④ 신규 에너지자원 개발

- ▷ 셰일오일 등 신규 광구를 개발하여 물량 주도권을 확보

① 유럽시장의 失地 회복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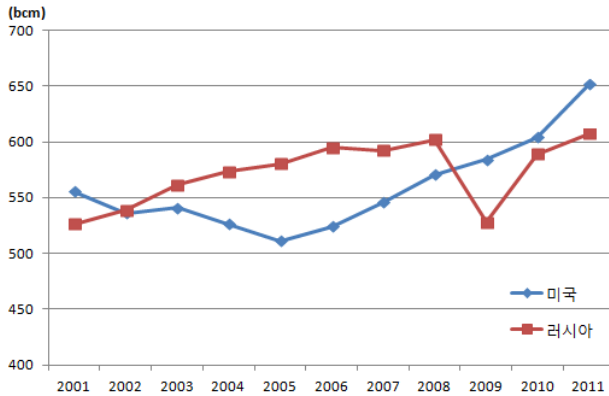
□ 미국 셰일가스에 밀린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對미 수출 물량이 유럽으로 유입됨에 따라 러시아의 對유럽 천연가스 수출이 감소

- 저렴한 미국의 셰일가스로 인해 카타르는 미국으로 수출하던 LNG를 유럽으로 수출
- 미국 석탄발전소가 가스발전소로 전환되자 반대로 유럽에서는 고가의 천연가스 대신 값싼 미국産 석탄을 발전에 사용⁴⁾
- 이에 따라 러시아 천연가스의 對유럽 수출량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
- 러시아 천연가스의 對유럽 수출량은 2008년 128.5bcm을 정점으로 이후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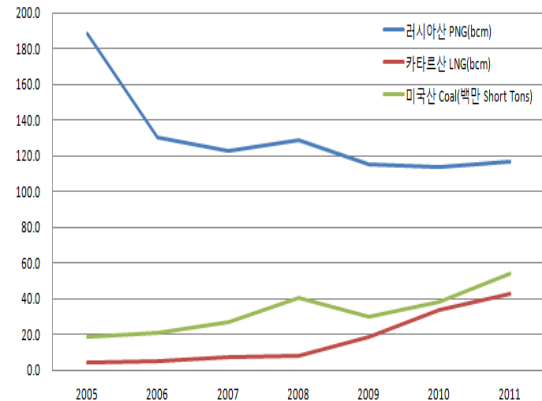
⁴⁾ 유럽 전력 생산의 석탄의존도가 최근 크게 증가했는데, 독일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전력 생산의 약 72%를 석탄에 의존

- 러시아 국영가스기업인 가즈프롬의 영업이익은 2012년 3/4분기까지 전년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

미국과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량 추이



유럽의 가스 및 석탄 수입 추이



자료: BP (2012.6.).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EIA (2011). Annual Energy Review.

가격구조 조정과 가즈프롬의 分社 등을 추진

□ 대폭적인 가격인하를 단행하고 천연가스의 유가연동제 폐지를 검토

- 러시아의 천연가스 장기공급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높아 가격 인하가 불가피
- 최근 LNG 현물가격이 1,000km³당 약 350달러로 러시아의 유가연동가격(450달러)보다 싸고 현물거래가 전체 거래의 50% 수준으로 증가
- 가즈프롬은 2012년 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등 5개국 에너지 기업에 대해 약 10%, 11월 폴란드에 대해 16% 가격을 인하
- 유가연동제 폐지에 대한 압박이 커지자 가즈프롬이 변동 가능성을 시사
- 2012년 말 노르웨이 스탓오일이 독일 윈터셀과 현물가격 기준으로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향후에도 이 방식을 지속할 것을 공표⁵⁾
- 2012년 6월 가즈프롬은 가스 가격을 재생에너지 전력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유가연동제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⁶⁾

⁵⁾ Shale surge poses threat to Gazprom.(2012.11.12.). *Financial Times*.

⁶⁾ «Газпром» очистит газ от нефти.(2012.6.5.). Газета.Ру.

- 불가방침을 유지했던 '가즈프롬의 分社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 가즈프롬의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제3의 에너지 규제', 즉 '가스 생산자와 운송자 분리 원칙'을 수용할 가능성을 시사
 - 러시아 정부는 분사 불가방침을 고수하며 파이프 건설에 참여한 글로벌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를 통해 저항
 - 그러나 2013년 5월부터 생산과 수송을 전담하는 두 개의 독립 기업으로 분사하거나 파이프라인을 타 기업에 인계할 것을 검토

제3의 에너지 규제(The 3rd Package)

- ▷ EU 집행위원회가 발안하여 2011년 3월부터 발효된 원칙으로, 독점 방지를 위해 가스 및 전력의 '판매자, 수송자, 배급자의 분리'를 명문화
- ▷ 실제로는 유럽의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EU가 진행하는 중앙아시아發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Nabucco'의 경쟁 프로젝트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가즈프롬의 유럽 파이프라인 'South Stream'의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

② 동북아시아 시장 개척 가속화

세일혁명은 러시아의 新東進 정책을 위협

- 러시아는 2000년대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新東進 정책을 가동하여 에너지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모색
 - 급증하는 아태지역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여 동부가스프로그램(UGSS)⁷⁾ 실행, 동시베리아 송유관(ESPO) 건설을 추진
 - 천연가스의 對아시아 수출 비중 3%(2003년)→30%(2020년)
 - 석유의 對아시아 수출 비중 5%(2003년)→25%(2020년)⁸⁾

⁷⁾ 서시베리아 지역에 이미 운영 중인 가스배관망을 동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으로 확대하여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가스 공급계획(United Gas Supply System)으로, 2030년까지 가스 생산을 위해 가스 생산센터 4개소 설치와 수송 및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 예상 투자비는 940억달러

⁸⁾ 러시아 정부가 2003년 발표한 '에너지전략 2020'의 내용

- 동북아 국가들의 상호경쟁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거래 주도권을 장악
 - 수급 다변화를 바라는 동북아 국가들에게 러시아의 자원이 필수적
 - 러시아 송유관을 둘러싼 중·일 경쟁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주도권을 확보⁹⁾

□ 그러나 동북아에 셰일연료가 등장하자 중국과 일본에 대한 협상력이 약화

- 미국의 중동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아시아의 중동 의존도는 오히려 심화
 - 셰일오일(타이트오일) 생산이 급증한 미국의 脫중동화로 인해 중동의 산유국들은 동북아시아로 석유 수출을 확대

- 아시아의 미국 셰일가스 수입이 현실화되고 중국은 자체 셰일가스 개발에 착수

- 한국은 한국가스공사가 2017년부터 20년간 350만 톤, 일본은 주부전력과 오사카가스가 연간 440만 톤의 LNG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합의
- 세계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중국은 이미 페트로차이나(PetroChina)와 시노펙(Sinopec)이 자국 내 탐사를 진행 중이며 수년 내 생산에 착수¹⁰⁾

파격적인 정치·경제적 양보를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

□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와의 공급 계약, 관련 인프라 구축에 있어 상대국의 요구를 대폭적으로 수용

- 러시아는 최대 구매자인 중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전향적 자세로 급선회

⁹⁾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ESPO) 프로젝트가 중·일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 중국이 장장 6년간의 노력으로 '동시베리아 양가르스크-바이칼호 남쪽-극동(부라티야)-중국 다칭' 노선에 대해 합의했지만 2002년 뒤늦게 일본이 135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조건으로 태평양 연안 노선을 제안하자 러시아가 ESOP의 노선 결정을 잠정 연기한 후 자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중국 노선과 일본 노선을 절충

¹⁰⁾ 매장량(36.1조m³)이 세계 최대로 추정되는 중국은 128억위안(약 2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연간 600억~800억m³의 셰일가스를 생산할 계획

- 2013년 3월 시진핑 주석의 방러를 계기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문제와 ESPO의 물량 확대 문제를 해결

시진핑의 방러 시기에 단행한 러시아의 조치

- ▷ 중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가스협상 타결
 - 2006년에 서부노선(알타이 노선)과 동부노선 등 2개의 가스파이프라인 노선을 건설하고, 2020년까지 총 68bcm의 가스 공급을 잠정 합의했으나 연기
 - [異見] ①노선: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동부노선만 고집, ②가격: 1m³당 100달러 이상 차이, ③업스트림 참여: 중국의 가스개발 참여 요구
 - [타결내용] ①서부노선 포기, ②가격은 비공개, ③중국은 북극 바렌츠 해, 동시베리아 페초르 해저, 사할린-3 등 업스트림에 참여
- ▷ 중국의 ESPO 원유 공급 증대 요구를 수용
 - [異見] 중국의 원유공급량 증대 요구를 형평성을 고려하여 거절
 - [타결내용] ①원유 공급량을 연간 3400만 톤(현재 1500만 톤)에서 5000만 톤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25년간 공급, ②중국개발은행은 20억달러의 차관 제공

- 일본에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한편, 對일 가스공급 프로젝트에 일본의 참여를 유도
- 러시아는 과거 쿠릴열도의 4개 섬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의 입장을 비난하며 영토권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2013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러를 계기로 영토협상을 재개할 것을 제안
- 최근 미국 셰일가스(LNG)의 對일 수출이 현실화되자 500억달러 규모의 블라디보스토크 LNG 공장 건설에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

③ 중동외교 강화

OPEC 등 글로벌 협력 기구와 기업을 활용하여 미국을 견제

- 러시아는 미주로 넘어간 에너지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對중동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전망

- [OPEC]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주요 석유 매장국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석유공급량 조절 등의 협력을 본격화
 - 극단적인 경우 타이트오일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OPEC 국가들이 석유공급을 확대하여 타이트오일의 생산단가 이하로 유가를 하락시킬 가능성
 - 타이트오일을 생산해 2020년 이전에 세계 최대산유국이 되려는 미국을 견제

- [가스수출국포럼] 러시아는 세계 가스의 공급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11개 천연가스 수출국¹¹⁾으로 구성된 가스수출국포럼(GECF)을 활용하는 동시에 OPEC형 가스 카르텔을 추진
 - 2002년부터 러시아는 가스 카르텔 창설을 제안하여 2008년 러시아, 카타르, 이란 3국의 합의를 도출
 - 2010년 4월 알제리에서 열린 GECF 회의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가스 가격 책정 시스템인 가스 가격의 유가연동제를 공동 추진하는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럽의 러시아 가스 가격제의 변동 압박에 대응

- [글로벌 에너지 기업] 자원 개발 부문에서 러시아의 글로벌 파트너 기업들과 공조해 셰일혁명을 견제
 - 러시아는 이미 對유럽 파이프라인 건설에 공동 참여한 이탈리아 에너지기업 Eni, 프랑스 EdF, 독일 BASF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조해 EU의 견제에 공동 저항한 경험을 보유

④ 신규 에너지 자원 개발

셰일오일 등 신규 광구를 개발하여 물량 주도권을 확보

□ 러시아 정부는 향후 공급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규 광구 개발에 매진

¹¹⁾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70%를 보유한 러시아, 알제리, 볼리비아, 이집트, 적도기니, 이란,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 푸틴이 설정한 '2020년까지 1일 1,000만 배럴의 산유량 유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서시베리아의 셰일오일' 개발에 착수
- 가즈프롬은 당분간 러시아의 셰일가스 개발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탐사 자체를 연기
- 미국의 셰일혁명에 대한 정치적 대응인 동시에 점점 고갈되어 가는 서시베리아 전통 유전의 대체 유전으로서의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

러시아식 셰일혁명 - 서시베리아 셰일오일 개발

▷ 매장량 및 생산량

- 매장량이 2조 배럴로 미국 최대 셰일오일 유전인 바켄보다 5배 많음
- 특히 바제노프(Bazhenov) 유전은 1일 50만 배럴(현재 러시아 총생산의 5%) 생산하여 연간 70억달러 세수 발생

▷ 개발 현황과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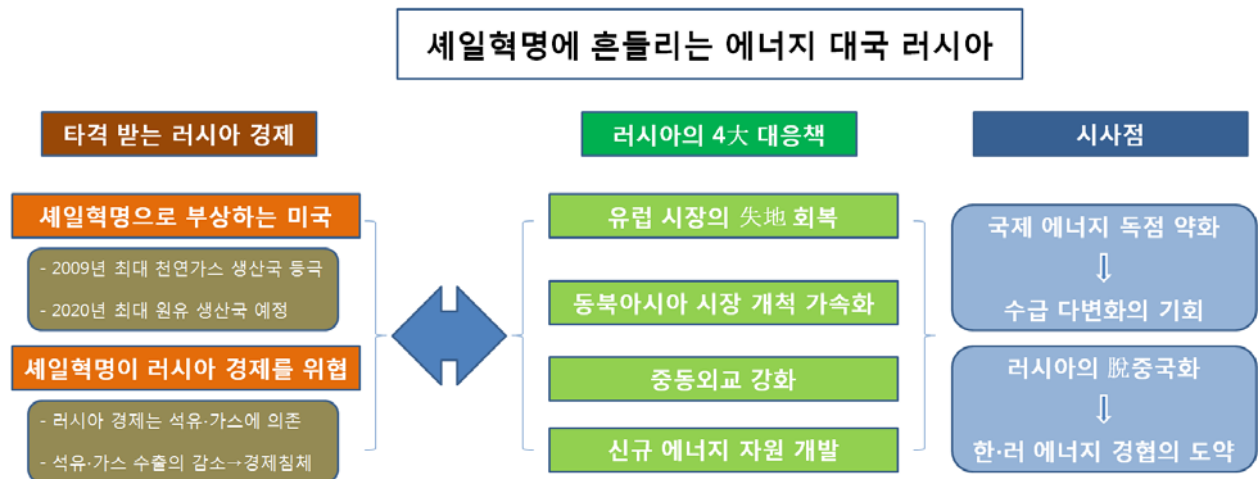
- 로스네프티와 미국 엑슨모빌은 2011년에 공동개발에 합의, 로열더치셸과 가즈프롬네프티의 합작회사, 루크오일 등도 참여할 계획

▷ 제도적 지원

- 광물자원세 100% 감면해주고, 2014년 의회를 통해 해상풍력과 함께 셰일 오일 관련 세금 감면을 제안할 예정

자료: Russia gears up for shale boom. (2013.3.31.). *Financial Times*.

- 무궁무진한 동시베리아와 북극해의 미발견 가스전과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자본의 참여를 유도
- 러시아는 2012년 10월부터 2017년까지 동시베리아 차얀다 가스전을 개발하고, 여기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3,200km에 달하는 파이프라인을 부설하는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스를 액화하는 LNG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
- 또한 북극해 항로를 이용한 야말 반도 보바넨코보(Bovanenkovo) 가스전을 엑슨모빌 등과 공동 개발하고 북극 바렌츠 해 개발에 중국의 참여를 허용



3. 시사점

국제 에너지 독점체제의 약화는 수급 다변화의 기회

□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달성

-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호주 등 셰일연료 생산국의 수출정책과 러시아의 동진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 2011년 한국은 석유의 약 88%를 중동에 의존했지만 러시아의 비중은 3.6%에 불과
- 모든 잠재공급원들에 대한 동등한 개방 원칙을 유지하여 구매자로서의 입지를 최대한 유리하게 구축
- 미국産 LNG 수입과 러시아産 PNG 수입을 동시에 고려하여 다양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유도¹²⁾

□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역내 협력 강화로 적정 가격 유지

¹²⁾ 미국의 셰일가스의 경우 액화저장고 건설 및 유지비, 운송비 등이 추가되어 한국 도착 가격이 1MMBTU당 12~15달러 선으로 결국 러시아의 유럽공급가와 비슷하며 남북러 가스관의 예상 공급가 (10달러 선)보다 비싸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러시아 가스를 도입해 가격을 조정할 필요

-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경쟁 과열로 수입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존재
- 역내 협력을 통해 에너지 가격 인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마련할 필요
 - 아시아 프리미엄이 적용된 동북아 지역의 가스 유가연동제(JCC¹³⁾)를 폐지하기 위해 한·중·일이 공조

러시아의 동북아 진출은 한·러 에너지 경협 발전의 계기

□ 러시아의 對중국 에너지 마케팅의 변화(중국의존→脫중국)에 주목

- 對유럽 수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 중심의 대규모 마케팅을 전개
 - 한국은 사전에 러시아의 현실적인 에너지 공급 여력을 파악한 후 러시아 측의 각종 에너지 관련 협력 제안에 대응
 - 가격 인하 등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폭적인 양보 조치를 파악하여 남북러 가스관 프로젝트 진행 시에 한국의 對러 협상에 활용
-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脫중국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등 역내 에너지 대량 소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전망¹⁴⁾
 - 중앙아시아와의 에너지 자원 협력 강화, 자체 셰일가스 생산 등 중국의 수급 다변화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점차 약화될 전망
 - 한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에너지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¹⁵⁾

¹³⁾ 아시아에 판매되는 LNG에 적용되는 유가연동가격으로 Japan Customs Cleared Crude 또는 Japan Crude Cocktail의 약자

¹⁴⁾ 전문가들은 최근의 에너지기술혁명과 관련하여 향후 러시아 대외정책의 특징으로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의 다변화,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 등을 꼽음(김연규 (2013). "북미 셰일혁명과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전략"(러시아-CIS 포커스). 한국외대.)

¹⁵⁾ 먼저 거대 에너지 소비국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물류 허브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글로벌 에너지 판매망을 구축하고, 세계 수준의 석유가스화학산업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 현대화와 선진화 정책의 파트너 역할을 담당

□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및 북극해 에너지 자원 개발 정책에 공조

- 지분 참여 혹은 EPC¹⁶⁾ 사업자로 참여할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
- 특히 한국은 자원 개발사업 자체보다는 관련 플랜트 및 IT, 인프라 구축 등 더 포괄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

동시베리아가 한국의 새로운 원유공급원으로 부상

수송기간과 수송료가 각각 중동의 1/4과 1/2에 불과한 ESP0(동시베리아 태평양송유관) 공사가 완료되어 동시베리아가 한국의 새로운 공급원이 될 전망

-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2013.2.19.)

<以上>

¹⁶⁾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는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 인도까지 일괄 공급하는 플랜트 건설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사업

주간 금융지표

금리 : 美 국채금리 급등과 외국인 국채선물 대량 매도 등으로 큰 폭 상승

	5.27	5.28	5.29	5.30	5.31
회사채(AA-)	2.98	3.01	3.12	3.11	3.14
회사채(BBB-)	8.61	8.64	8.75	8.74	8.77
국고채(3년물)	2.61	2.64	2.75	2.75	2.78
콜금리	2.49	2.49	2.49	2.49	2.49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원화 대비 강세 유로화, 엔화 대비 약세

	5.27	5.28	5.29	5.30	5.31
원/달러	1122.4	1126.9	1132.9	1127.4	1129.7
엔/달러	100.95	102.38	101.16	100.74	100.49
달러/유로	1.2932	1.2856	1.2941	1.3050	1.2999
원/100엔	1111.89	1100.76	1119.96	1119.17	1124.25

자료 : 한국은행, ECOS.;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엔화약세 진정에 대한 기대감 및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상승

구 분		5.27	5.28	5.29	5.30	5.31
거 래 소	KOSPI(p)	1,979.97	1,986.22	2,001.20	2,000.10	2,001.05
	거래량(만주)	25,608	31,141	36,263	43,569	39,751
	시가총액(조원)	1,151	1,155	1,164	1,164	1,164
	외국인순매수(억원)	440	-556	3,863	3,912	1,867
코스닥지수(P)		577.56	585.76	585.69	581.13	577.87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6. 3 ~ 6. 9)

06. 03. (월)

- 국내 보도자료: 5월 소비자물가동향 (통계청)

06. 04. (화)

- 해외 보도자료: 미국 4월 상품, 서비스수지 (상무부)
유로지역 4월 생산자물가 (EU통계청)

06. 05. (수)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5월말 외환보유액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4월 산업생산(EU통계청)
유로지역 1/4분기 GDP성장률 (EU통계청)

06. 07. (금)

- 국내 보도자료: 2013년 1/4분기 국민소득 (한국은행)
- 해외 보도자료: 미국 5월 실업률 (미국 노동부)

06. 09. (일)

- 해외 보도자료: 중국 4월 소비자물가 (국가통계국)
중국 4월 생산자물가 (국가통계국)
중국 4월 산업생산 (국가통계국)
중국 4월 소매판매 (국가통계국)

주간 해외 경제일지

(5. 27 ~ 5. 31)

미 주

5. 27. (월) · 미국: 4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6% 상승, 컨퍼런스보드
5. 28. (화) · 미국: 4월 기존주택매매 전월대비 0.6% 증가한 497만 호, 전미부동산협회
5. 29. (수) · 미국: 3월 주택가격지수 전월대비 1.3% 상승, 연방주택금융청
5. 30. (목) · 미국: 4월 신규주택매매 전월대비 2.3% 증가한 45만 4000호, 상무부
5. 31. (금) · 미국: 4월 내구재 주문 전월대비 3.3% 감소, 상무부

유 럽

5. 27. (월) · 독일: 4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통계청
5. 28. (화) · 영국: 4월 소매매출(자동차연료 제외) 전월대비 1.4% 감소, 통계청
5. 29. (수) · 이탈리아: 3월 소매판매액 전년동월대비 3% 감소, 통계청
5. 30. (목) · 프랑스: 5월 경기기대지수 전월대비 4p 상승한 92, 통계청
5. 31. (금) · 유로지역: 5월 경제기대지수 전월대비 0.8p 상승한 89.4, Eurostat

일 본

<p>5. 27. (월) · 일본: 3월 기계수주 전년동월대비 2.4% 증가, 내각부</p>
<p>5. 28. (화) · 일본: 3월 경기동행지수 전월대비 0.5p 상승한 93.8, 내각부</p>
<p>5. 29. (수) · 일본: 3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3p 상승한 97.9, 내각부</p>
<p>5. 30. (목) · 일본: 4월 전국백화점판매액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백화점판매연합회</p>
<p>5. 31. (금) · 일본: 4월 편의점 판매 전년동월대비 2.6% 감소, 프랜차이즈협회</p>

아 시 아

<p>5. 27. (월) · 태국: 1/4분기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5.3% 증가, 은행청</p>
<p>5. 28. (화) · 대만: 4월 실업률 전월대비 0.01%p 상승한 4.19%, 행정원 주계처</p>
<p>5. 29. (수) · 싱가포르: 4월 산업생산 전년동월대비 4.7% 증가, 경제개발청</p>
<p>5. 30. (목) · 베트남: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6.36% 상승, 통계청</p>
<p>5. 31. (금) · 홍콩: 4월 총수출 전년동월대비 9.0% 증가, 통계청</p>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8	2.3	43.8	8.5	4.7	3.2	..	14.3	11.9	7.02	0.03	0.02	1,124.5
2009	0.3	49.1	-0.2	2.8	3.6	2.2	10.3	7.9	5.81	0.03	0.02	1,682.8
2010	6.3	52.2	3.8	3.0	3.7	9.1	8.7	8.2	4.66	0.03	0.03	2,051.0
2011	3.6	47.3	6.7	4.0	3.4	1.6	4.2	5.3	4.41	0.02	0.02	1,825.7
2012	2.0	44.8	0.7	2.2	3.2	6.2	3.77	0.02	0.02	1,997.1
2012. 4	2.4	46.6	1.9	2.5	3.5	6.1	5.5	8.6	4.25	0.02	0.02	1,981.9
5			1.0	2.5	3.1		5.5	8.4	4.01	0.01	0.01	1,843.8
6			-0.0	2.2	3.2		5.9	8.5	3.87	0.02	0.01	1,854.0
7			-0.6	1.5	3.1		6.0	8.4	3.60	0.02	0.02	1,882.0
8	1.6	43.6	-0.1	1.2	3.0	4.7	5.7	7.8	3.40	0.02	0.02	1,905.1
9			0.2	2.0	2.9		5.2	7.6	3.31	0.02	0.01	1,996.2
10			-0.5	2.1	2.8		4.6	7.1	3.30	0.02	0.02	1,912.1
11	1.5	44.9	-0.9	1.6	2.8	3.8	4.4	7.1	3.32	0.03	0.03	1,932.9
12			-1.2	1.4	2.9		4.5	7.3	3.30	0.02	0.02	1,997.1
2013. 1	1.5	46.4	-1.6	1.5	3.4	..	4.8	7.7	3.20	0.02	0.02	1,961.9
2			-1.6	1.4	4.0		5.3	8.1	3.06	0.01	0.01	2,026.5
3			-2.4	1.3	3.5		5.0	6.8	2.95	0.02	0.01	2,004.9
4			-2.8	1.2	3.2		2.91	0.02	0.02	1,964.0

주 :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임금(제조업, 실질)은 2008년 이후 추정방법 변경 및 산업분류 개편(KSIC-9차개정)에 따라 2008~2010년 자료를 소급 적용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 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 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10=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8	86.4	100.8	1.1	1.1	2.4	-14.9	-7.6	77.6	3.3	15.7	-3.1	22.1
2009	93.3	97.4	2.6	4.3	-2.1	-12.0	5.0	74.4	-0.2	7.5	-9.2	13.0
2010	100.0	100.7	6.7	8.8	4.5	8.0	-17.7	80.3	16.7	38.2	19.9	-7.8
2011	102.4	101.0	4.5	7.7	5.6	7.6	6.1	80.2	6.0	27.0	11.1	2.9
2012	107.2	99.7	2.3	1.8	2.0	-13.4	-8.9	78.1	0.8	8.2	-3.2	4.9
2012. 4	106.2	100.0	0.4	-0.2	2.8	-4.4	-10.1	79.0	-0.4	-3.7	-1.3	0.8
5	106.3	99.7	2.7	2.9	1.4	-14.4	0.9	79.5	3.1	2.0	1.5	12.0
6	107.4	99.7	1.2	1.3	-0.1	-35.4	3.7	78.4	0.6	2.6	-3.0	0.7
7	108.0	99.8	3.8	4.2	0.1	-9.4	23.1	77.8	-0.3	-7.5	-10.8	7.7
8	108.1	99.3	1.1	-1.9	3.0	-13.8	-32.4	74.0	-2.1	11.8	-29.7	6.3
9	108.0	99.3	3.1	1.5	4.1	-8.1	-19.7	76.7	-0.8	0.0	-11.4	12.7
10	108.3	98.9	1.6	-2.8	-3.3	-20.8	-26.6	77.0	-1.9	5.9	-4.8	6.1
11	109.1	99.1	4.3	13.3	5.0	-26.4	-20.0	78.0	2.1	25.4	3.5	5.4
12	109.9	99.2	2.2	0.9	1.6	-17.0	-43.0	78.4	-0.4	30.0	-4.9	7.7
2013. 1	110.1	99.2	-2.7	-7.4	-16.6	-3.6	-52.7	78.6	7.7	26.7	23.9	31.8
2	110.4	99.3	1.6	1.0	8.3	-34.1	-47.0	77.2	-9.5	7.8	-17.4	-5.7
3	110.7	98.9	1.7	7.0	0.9	14.1	-20.7	75.5	-2.9	14.7	-12.3	-0.3
4	111.2	99.1	2.2	-2.1	-2.3	2.7	-20.6	75.9	1.7	15.8	-1.5	10.7

주: 2013년 1월부터 현행 2005년 기준지수를 2010년 기준으로 변경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363,534	-13.9	323,085	-25.8	37,650	-18.8	190,761	-10.9	86,703	-5.1	46,608	-20.2	9.9
2010	466,384	28.3	425,212	31.6	49,816	32.3	255,178	33.8	116,838	34.8	53,507	14.8	-0.3
2011	555,214	19.0	524,413	23.3	56,208	12.8	314,006	23.1	134,185	14.8	55,727	4.2	-10.9
2012	547,870	-1.3	519,584	-0.9	58,525	4.1	318,235	1.3	134,323	0.1	49,371	-11.4	-2.4
2012. 4	46,095	-5.0	43,957	-0.5	5,307	4.2	24,837	-5.9	10,464	-3.2	4,220	-20.9	-7.5
5	46,872	-1.0	44,480	-1.8	4,727	-8.6	26,372	0.0	10,716	-5.1	4,571	-0.8	-3.2
6	47,163	0.9	41,994	-6.3	4,977	0.2	26,499	3.3	10,829	-2.7	4,082	-20.2	-2.7
7	44,668	-8.7	41,977	-5.2	4,692	0.9	26,348	-7.0	11,247	-4.9	3,772	-10.5	1.2
8	43,045	-6.0	41,116	-9.4	4,222	-2.3	25,245	-6.5	11,062	-4.8	4,322	2.9	2.1
9	45,413	-2.4	42,560	-6.0	4,814	0.4	26,833	0.2	11,783	1.0	4,302	-6.0	-0.0
10	47,088	1.0	43,380	1.6	4,439	-3.6	28,343	5.9	12,461	5.2	4,039	2.4	-0.3
11	47,805	3.9	43,382	0.9	5,114	-5.3	29,584	11.9	12,429	11.0	3,466	-14.0	-0.4
12	44,875	-6.0	43,069	-5.3	4,555	-1.0	27,526	0.7	11,994	2.7	3,792	-8.5	2.7
2013. 1	45,708	10.9	45,242	4.0	5,002	21.3	26,369	11.1	11,425	16.7	3,762	-3.3	-0.1
2	42,353	-8.6	40,382	-10.5	5,007	-10.9	24,137	-6.7	10,391	-1.0	3,864	-15.3	-0.2
3	47,362	0.1	44,124	-2.1	4,980	-16.1	28,013	3.6	11,699	5.9	3,982	-8.5	2.3
4	46,269	0.4	43,822	-0.3	5,409	1.9	26,823	8.0	12,152	16.1	4,423	4.8	5.4

주: 순상품교역지수는 2013년부터 기준년도를 2010년으로 변경하면서 2010년 이후 시계열 단절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8	3,197.5	5,170.1	-5,734.1	4,435.4	109.3	-16,940.4	-2,405.6	201,223	1,257.5	1,393.89	3,173.7	245.5
2009	32,790.5	37,866.0	-6,640.5	2,276.7	289.6	-14,948.0	49,727.7	269,995	1,167.6	1,262.82	3,456.8	690.0
2010	29,393.5	40,082.5	-8,626.0	1,015.9	-217.9	-22,184.3	42,479.8	291,571	1,138.9	1,397.08	3,597.6	913.0
2011	26,068.2	31,660.0	-5,849.5	2,890.9	-24.7	-16,410.0	13,109.3	306,402	1,153.3	1,485.16	3,987.2	979.6
2012	43,138.5	38,337.7	2,676.2	4,885.5	602.1	-18,628.1	10,114.8	326,968	1,071.1	1,247.50	4,134.4	1,224.6
2012. 4	1,734.0	1,750.8	549.7	-422.0	102.3	-940.4	-2,213.3	316,837	1,134.2	1,412.01		
5	3,574.9	1,715.9	1,593.0	341.6	144.2	-1,382.0	-937.1	310,872	1,177.8	1,489.10		
6	5,879.9	5,053.8	170.0	901.8	37.8	-692.8	-2,330.9	312,378	1,153.8	1,453.79	4,157.7	929.4
7	6,144.3	5,340.6	593.3	401.9	36.3	-1,443.6	2,529.2	314,348	1,136.2	1,453.59		
8	2,504.3	2,514.0	-262.2	435.5	8.0	-1,607.1	580.9	316,885	1,134.6	1,443.97		
9	5,913.1	5,486.6	323.3	203.9	32.4	-2,378.2	2,668.7	322,015	1,118.6	1,441.12	4,193.8	1,072.1
10	5,781.7	5,168.9	378.3	521.9	-6.1	-975.0	-4,657.2	323,461	1,094.1	1,374.50		
11	6,906.2	6,777.4	-51.6	374.3	5.8	-1,336.2	-3,875.8	326,091	1,084.7	1,320.55		
12	2,140.2	1,917.3	30.8	639.0	107.1	-669.5	3,194.2	326,968	1,071.1	1,247.50	4,135.7	1,223.3
2013. 1	2,331.7	2,617.7	-927.1	968.4	48.5	-1,417.7	-4,374.3	328,910	1,082.7	1,188.47		
2	2,712.9	2,562.9	-461.0	628.9	37.8	-777.8	1,993.5	327,395	1,085.4	1,176.20		
3	4,927.2	4,159.2	905.1	-222.3	65.7	-1,870.4	-3,389.1	327,408	1,112.1	1,180.13	4,102.8	1,342.3
4	3,972.2	3,588.6	1,447.4	-1,088.6	-36.8	303.3	-1,917.5	328,800	1,108.1	1,132.04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3	-3.5	3.8	5.8	13,075	25,410	-6,771	0.25	8776.4
2009	-3.1	-11.4	-0.3	9.3	10,697	19,581	-3,819	0.25	10428.1
2010	2.4	5.4	1.6	9.6	12,889	23,372	-4,420	0.25	11577.5
2011	1.8	4.1	3.1	8.9	14,974	26,632	-4,659	0.25	12217.6
2012	2.2	3.8	2.1	8.1	15,641	27,340	-4,750	0.25	13104.1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8	-1.0	-3.4	1.4	4.0	8,102	7,895	1,677	0.1	859.2
2009	-5.5	-21.8	-1.3	5.0	5,417	5,150	1,376	0.1	907.6
2010	4.7	16.6	-0.7	5.1	6,740	6,076	1,788	0.1	898.8
2011	-0.6	-2.3	-0.3	4.6	6,555	6,808	955	0.1	728.6
2012	2.1	-1.0	0	4.4	6,374	7,067	462	0.1	859.8

주: 1) 전년동기대비, 2) overnight call, 3) TOPIX

[유로지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3	-2.3	3.3	7.6	15,771	16,151	-1,423	2.50	2451.5
2009	-4.4	-13.7	0.3	9.6	12,800	12,682	-211	1.00	2966.2
2010	2.0	4.1	1.6	10.1	15,338	15,519	-20	1.00	2792.9
2011	1.5	2.6	2.7	10.2	17,452	17,598	89	1.00	2316.5
2012	-0.5	-2.9	2.5	11.4	18,697	17,899	1,161	0.75	2660.0

주: 1)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2)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8	0.0	2.6	7.6	9,816	8,052	1,620	0.86	4810.2
2009	-5.1	-15.5	0.3	7.7	8,018	6,642	1,366	0.28	5957.4
2010	4.0	10.1	1.1	7.0	9,464	7,946	1,496	0.31	6914.2
2011	3.1	8.0	2.1	6.0	10,567	9,005	1,574	-0.18	5898.4
2012	0.9	-0.8	2.0	5.5	10,996	9,103	1,385	-0.05	7612.4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8	-1.0	-2.7	3.6	5.6	2,521	3,462	-183	2.0	4434.2
2009	-4.0	-9.1	2.2	7.5	2,281	3,110	-172	0.5	5412.9
2010	1.8	2.2	3.3	7.9	2,657	3,642	-370	0.5	5899.9
2011	0.9	-0.8	4.5	8.0	2,991	3,993	-300	0.5	5572.3
2012	0.2	-2.3	2.8	8.0	3,005	4,068	-496	0.5	5897.8

주: 1) 영란은행 RP 금리, 2) FTSE 100지수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¹⁾	주가(기말) ²⁾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8	-0.2	-2.8	2.8	7.8	4,194	4,751	-356	1.66	3218.0
2009	-3.0	-12.6	0.1	9.6	3,469	3,920	-244	0.36	3936.3
2010	1.6	4.7	1.5	9.7	3,913	4,440	-300	0.40	3804.8
2011	1.7	1.7	2.1	9.6	4,266	5,009	-418	0.01	3159.8
2012	0.1	-2.2	2.0	10.3	4,440	5,113	-340	0.03	3641.1

주: 1)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2)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9.1	12.8	5.9	4.1	14,287	11,315	4,124	5.31	1820.8
2009	8.5	12.2	-0.7	4.3	12,020	10,039	2,610	5.31	3277.1
2010	10.4	14.5	3.3	4.2	15,784	13,939	2,376	5.81	2808.1
2011	9.3	13.8	5.4	4.1	18,993	17,416	2,017	6.56	2199.4
2012	7.8	10.0	2.7	4.1	20,501	18,173	2,138	6.31	2269.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 ¹⁾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 ²⁾	주가(기말) ³⁾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8	0.7	-1.8	3.5	4.1	2,556	2,405	275	2.00	4591.2
2009	-1.8	-8.1	-0.9	5.9	2,037	1,744	429	1.25	8188.1
2010	10.8	26.9	1.0	5.2	2,746	2,514	399	1.63	8972.5
2011	4.1	5.0	1.4	4.4	3,084	2,816	416	1.88	7071.1
2012	1.3	-0.1	1.9	4.2	3,011	2,707	320	1.88	7699.5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